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및 골프 기자
배포일자: 2025년 10월 23일(목)
관련자료: 사진자료

KPGA 투어 · DP 월드투어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 안병훈, 마쓰야마 히데키, 아담 스콧 등 정상급 선수 총 126명 출전해 26일까지 경쟁
- 총 상금 400만 달러, 우승자에게 상금 68만 달러 및 GV80 부상 수여
- ... 13번 홀 홀인원 성공 시 선수에게 GV70, 캐디에게 GV60 부상으로 증정
- 선수, 캐디, 골프 팬들을 위한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환대 프로그램 제공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국내 남자 골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지난해부터 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해 출전 선수들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년도 우승자인 안병훈을 비롯해 김시우, 임성재, 마쓰야마 히데키(Matsuyama Hideki), 아담 스콧(Adam Scott), 토마스 디트리(Thomas Detry) 등 KPGA 투어, PGA 투어, DP 월드투어 소속 총 126명의 글로벌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대회 총 상금은 KPGA 투어 대회 중 최대 규모인 총 400만 달러로,



PRESS RELEASE

우승자에게는 상금 68만 달러 및 GV80가 부상으로 제공된다.

동시에 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 포인트(KPGA 투어) 1,300점과 레이스 투 두바이 랭킹 포인트(DP 월드투어) 835점이 주어지며 향후 2년 간 KPGA 투어 및 DP 월드투어 출전 자격도 부여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동안 13번 홀에서 첫 번째로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와 캐디에게는 GV70 부분변경 모델과 GV60 부분변경 모델이 각각 부상으로 수여되며, 16번 홀에서 첫 번째로 홀인원을 성공한 선수에게는 G80 블랙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제네시스는 올해도 차별화된 현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가 선수와 캐디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대회장에 선수 및 캐디의 전용 휴식 공간인 플레이어스 앤드 캐디스 카페(Players & Caddies Cafe)를 마련하고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차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골프장 내에 팬 빌리지와 제네시스 스위트 등 관람객들이 골프 문화를 즐기고 제네시스만의 브랜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골프·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제네시스 컬렉션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시스 스위트에 충청권 제네시스 전용 거점인 ‘제네시스 청주’ 오픈을 기념해 진행됐던 조성호 작가의 특별전 공예품을 전시하고 대회장 곳곳에



PRESS RELEASE

GV80와 G80 블랙 등 총 4대의 차량을 배치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실력과 해외 선수들과 함께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내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올해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경쟁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사진설명> KPGA 투어·DP 월드투어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진다.